

시끌벅적 e-스타



‘종이인형놀이’ 동영상 인기

종이 인형놀이를 하면 꼭 생각해야 할 세 가지 항목이 있었다. 1. 화려한 의상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손이 저릴 정도의 가위질도 감수해야 한다. 2. 아무리 예쁜 옷도 고리가 없으면 인형에 입힐 수 없는 만큼 고리 부분을 오릴 때에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이 안된다. 3. 인형의 가장 취약점은 목, 목 뒤쪽에 살면서 투명 테이프를 붙여주는 센스는 필수다. 예쁜 의상을 갈아입히며 소녀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종이인형놀이가 동영상으로 태어나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포털 ‘다음’ 동영상 코너에 올라온 ‘종이인형놀이’라는 동영상은 지난 28일 첫 선을 보인 뒤 2만 명의 네티즌의 클릭세례를 받았다. 동영상에는 솔로생활 1만일을 기념해 소개팅을 한다는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등장한다. 친구들은 핸드폰을 이용해 옷을 등장해 하나하나 ‘소개팅 남’에게 입혀준다. 상의부터 시작해 가장 어울리는 의상이 입혀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동영상 마지막에는 안경과 목도리까지 완벽하게 구비한 ‘소개팅 남’의 멋진 변신 모습을 볼 수 있다. 네티즌들은 “난 남자라서 인형놀이 해본 적은 없지만 재미있네요”, “아이디어가 좋아요, 어릴 때 하던 인형놀이가 생각나네요”라며 남자를 떠나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엔지 마지막 뽀레는 테가 좀 얇았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동영상 재생 50초쯤 나오는 머플러는 어디 제품인가요?”라는 질문을 하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의상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용수의 파스칼리즘



지금 나는 사람들의 추억을 찾아주는 방송을 하고 있다. 기억 속에 오랜 시간 묻혀 버려 마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추억들... 그 추억들이 내 방송의 주된 소재이다. 내 기억을 더듬으며 지난 날의 앨범을 뒤적이다 아버지께서 어린 나를 안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그속의 아버지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인다. 딸 넷을 낳고 마흔이 넘어서 본 하나 뿐인 아들이어서 자기도 행복해 하겠다. 그런데 난 자라나면서 사진 속에서처럼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시는 아버지... 난, 이 곡에 특히 기억나는 사연이 있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께서 타지에서 홀로 자취 생활을 하시다가 화상을 입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다. 문병을 갔다가 광주로 오는 터미널 옆에 조그만 음악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곡이 바로 Paul Anka의 Papa였다.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니 잠시 눈시울이 붉어진다. 또 다른 Papa, Bill Anderson의 노래는 땅을 사랑하고 농사를 짓는 것을 천적으로 알고 살아오신

아련한 아버지의 기억 ‘Papa’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리 살아오신 것은 아닐까? 어린 시절 우리 기억속의 아버지의 모습은 태산처럼 높았고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았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아버지는 참 많이도 감정 표현이 서투르셨던 것 같다. 요즘처럼 자식에게 혹은 동료나 지인에게 다정하게 포옹하고 뺨을 부비며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으로서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헤쳐 나가야 하는 두려움... 지난날, 아버지께서 그토록 자유롭게 못했던 이유가 바로 가족, 그 안에 아들이나 있었음을 이제는 알 것 같다. Pop 음악 중 아버지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두 곡이 바로 Papa다. 74년에 발표한 Paul Anka의 Papa는 우리의 정서에 맞는 멜로디와 가사로 추억속의 한 곡으로 남아 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흔들림의자에서 홀로 잠이 드

리빙 센스 '가족 제품 관리' 이렇게 해주세요. 물기는 가족의 수명을 단축하므로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주의하고, 드라이클리닝을 하고나면 윤기가 떨어지고 변색 되므로 급급적 세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록은 부드러운 지우개로 가볍게 문질러 주고 가죽 전용왁스나 폴드크림으로 닦아주세요. 가죽 옷에 주름이 생겼을 때는 가죽 전용 크림을 바른 후 안쪽으로 뒤집어 형질을 대고 가장 낮은 온도로 눌러가면서 다림질 해주세요. 수분은 가죽의 적! 스타디라미는 사용금지입니다. 곰팡이가 피었다면 그늘에서 보송보송할 때까지 말린 후 벨벳 소재의 천으로 살살 비벼서 털어냅니다. 얼룩진 부분에는 천에 가죽용 크림이나 희석한 암모니아를 적신 후 꼭 짜서 닦아줍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을 가죽에 대고 문질러 주면 광택을 내는 데 좋습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월3일(음 11월 25일 壬寅)
36년생 특보다는 심이 많고 흥이 발생한다. 48년생 새로운 희망의 열매가 있고 협조자가 나타난다. 60년생 새로운 사업 구상을 접의 받고 조치가 생긴다. 72년생 신중하고 긴 안목으로 협력자를 돌아보라. 84년생 요행을 삼가하라. 행운의 숫자: 19, 31
37년생 절대로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마라. 49년생 될 듯 될 듯한 구상만 있고 실행은 되지 않는다. 61년생 남성은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재산하라. 73년생 대문 안과 밖을 살펴보면 失物을 예감한다. 85년생 가정의 안정이 있다. 행운의 숫자: 06, 28
38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50년생 새로운 설계를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길이다. 62년생 아는 도끼에 받들 적하니 경계망동하지마라. 74년생 장기간 움직임에서 벗어나 기쁨이 다가 올다. 행운의 숫자: 15, 33
39년생 생기가 발산하고 예정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51년생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길하다. 63년생 재수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75년생 심사숙고해야 하라. 행운의 숫자: 18, 32
40년생 화는 많고 깊은 일은 적으니 변화를 자제하라. 52년생 부부사이의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해하며 보라. 64년생 생은 돈의 소비가 있다. 76년생 역습을 당하는 형상이나 큰 불평한 일은 없다. 행운의 숫자: 24, 27
41년생 길사는 많으나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53년생 규모를 줄이고 내실을 기하면 대수는 없다. 65년생 자신의 일을 잘 점검하고 뒤돌아보라. 77년생 원한 맺힌 미운사람이 나타나고 잘못된 길을 가르친다. 행운의 숫자: 23, 43
42년생 상문으로 시국이 풀 수도 있다. 54년생 시기상조이니 마지못해 조심도 같이 해야. 66년생 배인 편에 애사가 발생할 수도. 78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한 손재수가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2, 43
43년생 初行 길은 불평하고 낯설지만 새로운 생기가 넘치리라. 55년생 앞으로의 불평한 일을 예측하고 있어야 한다. 67년생 길의 흐름을 읽어보라. 79년생 자녀문제가 발생하니 주변을 잘 살펴라. 행운의 숫자: 10, 42
44년생 고역은 없으니 마음 놓고 지내라. 56년생 내음으로는 통한 듯 하니 일고의 우려가 있다. 68년생 의욕이 추진은 있으나 재차리결함이다. 80년생 길은 미려하지만 내부는 불행의 씨앗이 움틀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6, 22
45년생 집안간 지식이 돌아온 형상이나 결과는 허망할 수도 있다. 57년생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배가 되어 당당하다. 69년생 급히 서두르면 큰 손해가 온다. 81년생 기쁨 속에 함정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02, 44
46년생 서로 경쟁하듯 나가기 흥하고 길은 적다. 58년생 좋다고는 볼 수 있으나 一進은 있다. 70년생 새로운 소식이 있으나 서둘지 마라. 82년생 시비를 따지는 송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내하라. 행운의 숫자: 13, 41
47년생 협조가 이루어진 듯하나 결과는 미미하다. 59년생 마치 막 마무리를 할하면 큰 득은 있다. 71년생 길이 답답하고 안보이나 슬픔은 트인다. 83년생 박사가 불성하니 신중을 고려하고 기뻐야 한다. 행운의 숫자: 20, 39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백의 승부수 9보(128~146)
남녀 패어부 결승전
우변에서 백이 짚지를 쓰면서 간신히 살아서는 흑이 승세를 확립한 국면. 전남팀에게 금메달의 꿈이 가시화되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흑▲가 이 꿈을 흔들리게 만든 과수로 백이 128로 반발해 국면이 복잡해지고 있다.
흑▲로는 '참고도'의 흑 1로 확실하게 지키는게 좋았다.
중앙 대마가 못살아 있으므로 백은 2로 받는 정도인데 그때 3으로 지키면 반면 15집 정도는 여유가 있는 국면이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백의 승부수 9보(128~146)
白 이용희 6단 이선아 6단 (서울)
黑 홍석의 7단 김지은 6단 (전남)
백은 대마는 둘째치고 집부족이므로 무조건 128로 붙어 승부수를 날린다.
흑도 기호지세로 129로 찢어서 136까지의 교환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이제는 흑도 상변이 깨졌으므로 중앙 백 대마를 공격해 소정의 대가를 받아내야만 한다.
백의 유일한 구명줄은 144로 끼워 넣고 146으로 찢어가는 때, 과연 사는 수가 있을 것인가...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한중 온라인바둑 시즌 가리다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바둑을 평정한 네티즌들이 2일부터 타이젠 주최 제5회 동양생명배 세계바둑오픈 제2라운드 결승전에서 온라인 대결을 펼친다.
한국 대표인 아이디 '올아가'와 중국 네티즌 'LORDRINGS'는 2일부터 3일간 타이젠 대국실에서 3차례 인터넷 대국을 벌여 우승자를 가린다.
매일 오후 8시 타이젠 홈페이지(http://www.tygem.com/)에 마련된 대국실에 접속하면 관람이 가능하다.
제5회 동양생명배 2라운드는 제한 시간 각각 20분에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며, 우승 상금은 1천만원·준우승 400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더마플라스트 밴드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068>
I usually go to work by subway train
나는 대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네
A: Do you like the city that you just moved to?
B: Yes, I like it. It's a big city with friendly people.
A: How about transportation?
B: It has different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such as trains, buses, taxis and an MRT system(mass rapid transportation). It's quite convenient.
A: It sounds like what we have in Gwangju. We have a subway train system, too. I usually go to work by subway train.
A: 자네는 그 도시가 맘에 들었어? 이제 막 이사 간 곳이야.
B: 네, 좋습니다. 도시도 크고,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A: 교통은 어떤가?
B: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기차, 버스, 택시 그리고 MRT 시스템 같은 것이 있습니다.
A: 듣고 보니 광주와 비슷하군. 우리도 지하철을 이용한다네. 나는 주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지.
* transportation : 교통수단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068>
四月(しがつ)生(う)まれですね。
4월 출생이군요
A: 金さん、お誕生日(たんじょうび)はいつですか。
B: 先月(せんげつ)の五日(いつか)でした。
A: 四月(しがつ)生(う)まれですね。四月(しがつ)の五日(いつか)はお休(やす)みでしたか。
B: いいえ、その日(ひ)はお休(やす)み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A: 김씨, 생일은 언제입니까?
B: 지난 달 5일이었습니다
A: 4월 출생이군요. 4월 5일은 휴일이었죠?
B: 아니요, 그날은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生(う)まれ: 태생, 출생
お休(やす)み: 쉬는 것, 쉬는 날, 휴일
お休(やす)みの日(ひ): 휴일
~~~ね: ~~이군요, ~~이죠 (가볍게 묻는 표현)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45>
说话要算数
말한 것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 说话要算数啊。
Shuohua yào suànshù a.
수화 요오 수안 수수.
B: 当然算数啦。诸位都是老客户。
Dāngrán suànshù la, zhūwèi dōu shì lǎo kùhù.
당관 수안 수 리, 주웨이 두우 스 리오 라후.
A: 我们公司也很讲信用。
Wǒmen gōngsī yě hěn jiǎng xìn yòng.
우먼 공씨 예 허 젡잉 신 용.
B: 我们彼此都讲信用。
Wǒmen bǐ cǐ dōu jiǎng xìn yòng.
우먼 비 씨 두 젡잉 신 용.
A: 말한 것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B: 당연히 책임집니다. 여러분 모두 단골 손님이지요.
A: 저희 회사도 매우 신용을 중시합니다.
B: 우리 모두彼此 신용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敬数 [suànshù] 책임을 지다
谈信用 [jiǎngxìnyòng] 신용을 중시하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 383-1605
한자 이야기 <685>
四時長春(사시장춘)
역사, 때시, 길 장, 봄 춘
사시장춘(四時長春)은 네 계절 어느 때나 봄처럼 잘 지낸다는 뜻이다. 즉 일년내내 화창한 봄날처럼 평온하게 지내는 것을 비유한다.
새해의 막이 열렸다. '이상향(理想鄉) 북사동 풍산은 천 리 밖 먼 곳에 있지만(桃源千里遠), 꽃이 만발한 골짜기는 사시가 봄이라네(花洞四時春)'의 시구처럼, 올 한해도 항상 봄날 같기를 기원한다.
조선후기의 풍속화가 신윤복(申潤福, 1758~?)이 봄을 그린 것 중에 '사시장춘'이라는 풍속화(風俗畵)가 있다.
방문 앞쪽마루 위에 다홍색 여자 신발이 나란히 있고, 그 옆에 검은색 남자 신발이 한쪽은 바르지만 나머지 한쪽은 비뚤하게 놓여있어 방안에 남녀가 있음을 알리려한다.
뒷마루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계집종이 술병을 들고 영거주춤 서있고, 오른쪽 후경(後景)에는 검무스런 숲 사이로 실낱같이 흐르는 계곡이 한줄기 폭포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기둥에는 한자로 '四時長春'이라는 주련(柱聯)이 하나 걸려있다.
작가는 봄날은 봄날인데 운우지정(雲雨之情) 같은 봄날이 되기를 바라던 것 같다.